



2005년 4월 6일

롤스-로이스, 싱가포르 파트너사와 연료전지사업에 투자

롤스-로이스는 싱가포르의 컨소시엄 업체들과 함께 연료전지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업용 동력시스템 개발사업에 1억불을 투자하기로 계약서에 서명했다.

1992년 연료전지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한 롤스-로이스는 이 분야의 향후 연구개발을 위해 2003년 'RRFCS(Rolls-Royce Fuel Cell Systems Ltd.: 롤스-로이스 연료전지시스템)'라는 지분 100%의 자회사를 설립했다. RRFCS는 독자적인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하고 고효율의 친환경적이며 가격경쟁력을 갖춘 동력시스템생산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.

이 계약에 따라 롤스-로이스와 싱가포르 컨소시엄(EnerTek)은 해당 프로젝트에 추가로 1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며 롤스-로이스가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비용과 그동안 개발한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EnerTek이 RRFCS의 지분 중 25%를 소유할 예정이다.

자본투자 이외에 EnerTek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가치있는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, 특히 세라믹, 자동화생산기술 및 핵심연구 등의 기술을 공유할 것이다. EnerTek 컨소시엄의 참여업체 중 Accuron Technologies 사는 RRFCS에 Advanced Materials Technologies라는 자사를 통해 세라믹컴포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.

또한 EnerTek에는 싱가포르경제개발국의 자회사인 'EDB(Economic Development Board) 투자 주식회사'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'Temasek Holdings'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. 싱가포르에서 지난 6일 거행된 계약서 서명식 행사와 오찬에서 롤스-로이스의 CEO인 존 로즈(John Rose) 경은 "아직 초기단계지만 이처럼 의미 있고 중요한 벤처사업에 참여하면서 불확실성을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파트너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. 롤스-로이스는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파트너를 발견했고 싱가포르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"고 밝혔다.

롤스-로이스의 사업개발 이사로 근무했던 찰스 콜트만(Charles Coltman) 현 RRFCS의 회장 겸 CEO는 "1억불의 추가자금투자 약속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RRFCS과 컨소시엄사들이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. 롤스-로이스는 이 분야의 시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. 연료전지에 관한 과학은 비밀이 아니며 이 과학을 사용가능하고 경쟁력있는 기술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고도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롤스-로이스는 정확한 진로를 따라 전진하고 있으며 조심스럽게 장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이번 행사장에는 싱가포르 청소년체육지역개발부 장관 겸 무역산업부의 차관 비비안 발라크리쉬난(Vivian Balakrishnan) 박사, EDB사의 테오 밉 키안(Teo Ming Kian) 회장,

Temasek 사의 탄 수안 스위(Tan Suan Swee) 상무이사 및 RRFCS 의 이사와 Accuron Technologies 의 부사장 탐 흑 추안(Tam Hock Chuan) 등이 함께 참여했다.

EDB 사의 테오 밍 키안(Teo Ming Kian) 회장은 “이러한 첨단분야에서 싱가포르가 롤스-로이스의 파트너가 되어 기쁘다. 롤스-로이스가 싱가포르를 선택한 것은 신기술의 개발과 상업화에 있어 매우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로 벤처기업의 성공을 통해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기술의 허브역할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Temasek 사의 탄 수안 스위(Tan Suan Swee) 상무이사는 “Temasek 사는 RRFCS 이 개발하고 있는 고체산화연료전지에 매우 높은 상업화 가능성을 보고 있다”면서 이 기술은 기존의 가스터빈이나 다른 엔진에 의해 발생하는 동력에 비해 더욱 효율적인 동력을 생산할 것이다. 또한 롤스-로이스는 동력시스템의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를 추구하는 강력한 파트너”라고 설명했다.

Accuron Technologies 의 로 척 양(Loh Chuk Yam) 사장 겸 CEO 는 “Accuron 은 이 벤처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, 세라믹기술이 합작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###

롤스-로이스 소개자료

롤스-로이스는 전세계적으로 민간항공, 국방 항공우주, 해상 그리고 에너지 등 4 개 분야 시장에 걸쳐 활약하고 있다. 롤스-로이스는 500 개 이상의 항공사, 4,000 개의 기업 및 다목적 항공기 및 헬리콥터 운영회사, 160 개국의 군대, 그리고 70 개국의 해군을 포함한 2,000 개 이상의 해양업체 등 광범위한 고객기반을 가지고 있으며, 약 120 여개 나라에 에너지 업체들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.

지난 2004 년 창립 100 주년을 맞이한 롤스-로이스의 연간 총매출은 약 60 억 파운드(약 110 억달러)에 달하며, 그 중 55%는 서비스 수익이다. 수주액은 210 억 파운드(약 390 억달러)로, 이 금액은 서비스 수요와 함께 향후의 기업활동 수준을 가늠케 해 준다.

한국의 경우, 롤스-로이스는 대한항공, 아시아나 항공, 각 정부 기관, 그리고 대한민국 육-해-공군에서 운용 중인 300 대 이상의 항공기에 대해 500 대 이상의 엔진을 공급하고 있다. 또한 롤스-로이스의 워터제트, 프로펠러 및 선박 기중기는 현재 대한민국 해군, 해양경찰 및 해안경비청에서 운용되고 있다.

롤스-로이스는 한국을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장기적 협력 파트너로 보고, 국내 사업운용 방식으로써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생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.

약 80 여명의 직원을 둔 부산 소재의 해양장비공장을 통해 롤스-로이스는 한국, 일본 그리고 중국의 조선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. 아울러, 국내 주요 조선업체에 가스 터빈을 공급함에 따라 세계적인 정유, 가스 그리고 발전 업체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장착되고 있다.

삼성 테크윈은 롤스-로이스의 국내 파트너사로서 2001년 서명한 장기계약 하에 롤스-로이스가 생산하는 Airbus A380 용 Trent 900 엔진의 연소실 모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.

롤스-로이스는 서울 사무소 외에도 서산과 인천에 서비스 대표부를 운영하고 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.rolls-royce.com을 참조.

문의: CPR 차유정 02-739-7353 / junecha@icpr.co.kr
추윤희 02-739-7354 / katechoo@icpr.co.kr